



다들 너무 시끄러웠어요. 루크는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?

너무 시끄러워!

리처드 엠 롬니
교회 잡지
(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)

루크는 끄덕였어요. 다들 너무 시끄러웠어요. 태드 형과 존 형은 또 싸우고 있었어요. 방문 틈새로 고향 소리가 새어 나와 복도 끝에서도 다 들렸어요. 큰누나 리지는 음악을 또 크게 틀었어요. 쿵. 쿵. 쿵. 묵직한 박자음이 쉬지 않고 계속 들렸어요.

루크는 형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어요. 하지만 태드 형에게 “넌 상관 마.” 하는 소리만 듣고 말았죠. 리지 누나에게도 소리를 좀 낮춰 달라고 부탁했지만, 누나는 오히려 음악을 더 크게 틀었어요.

루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. 하지만

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.

다행히 루크가 갈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. 부모님이 어제 만들어 주신 루크의 방이었죠. 거긴 태드 형, 존 형이랑 같이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어요. 루크의 방은 지하에 있었어요. 침대와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지만, 문을 닫으면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.

루크는 새로 생긴 자기 방으로 내려갔어요. 루크는 방에 갖다 놓았던 상자를 보다가 걸면에 붙은 예수님 그림에서 시선이 멈췄어요. 루크가 침례받던 날 받은 그림이었죠. 그 그림을 볼 때면 항상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.

출처: 브라이언 바지

들여다보았어요. “하나님 아버지,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평안을 느끼도록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.”



루크는 그림을 상자에서 떼서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. 그런 뒤 루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. “하나님 아버지, 가끔 우리 집은 너무 시끄러워요. 제가 좀 더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”

루크는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. 루크는 초등학교에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다고 배웠어요. 성신이 언제나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도요.

얼마 안 가서 엄마 아빠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. 부모님이 태드 형과 존 형에게 이야기하시면 싸움은 멈출 거예요. 잠깐은요. 두 분이 리지 누나에게도 이야기하시면 음악 소리를 줄여 줄 거예요. 잠시일 뿐이겠지만요. 엄마와 아빠가 다시 출근하시기 전까지는 그래 줄 거예요.

그래도 루크는 일단 침대에 누워 예수님 그림을

잠시 후, 누군가 루크의 방문을 두드렸어요. “들어가도 되니?” 엄마의 목소리였어요. “잘 지내고 있었니?”

“태드 형과 존 형이 또 싸웠어요. 리지 누나는 음악을 정말 크게 틀었고요.”

“엄마도 알아.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.” 엄마가 말씀하셨어요. “아빠가 지금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셔. 엄마도 오늘 밤에 리지와 이야기를 해 볼게. 그래도 엄마는 먼저 네가 괜찮은지 알고 싶었어.”

“전 괜찮아요. 제 방이 있어서 다행이에요.” 루크가 말했어요.

“엄마도 그래. 이제 보니 탁자 위에 예수님 그림을 올려놓았네?”

루크는 방긋 웃었어요. “네. 예수님은 제 방이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.” ●

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

여러분이 집에서 평안을 느낄 방법을 글로 쓰거나 그려 보세요.